

昌德宮 研究(I)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전통공간의 시대적 변화—

손창구*·김귀곤**·오구균***·김익수****·전용준*****

- *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 **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 *** 호남대학교 조경학과
- **** 한국조경학회
- ***** 서울대학교 조경학석사

A Study on Changduk Palace(I)

— Special Consideration on the Chronological Changes of the Traditional Space with Buildings

Sohn, Chang Ku. Kim, Kwi Gon.** Oh, Koo Kyoon.*** Kim, Ik Soo.**** Chun, Yong Jun*****

- * Dept. of L.A., Dongkuk Univ.
- ** Dept. of L.A., Seoul National Univ.
- *** Dept. of L.A., Honam Univ.
- ****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 ***** Master of L.A., Seoul National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bases for the restoration of traditional Palace gardening by chronologically analyzing the change of space in Changduk Palace.

The result of analyzing archives and Dongguldo is that the most of present spaces are considerably differ from the spaces of traditional Palace.

But the backyard of Palace was not greatly damaged and the spaces of Injungjun and Daejojun was immediatly re-stored.

1 序 論

최근 人間環境에 대한 一般人的 關心이 適去 어느때보다도 增加하고 있으며, 數值的 해석에 의한 環境汚染에 대하여는 상당히 민감한 反應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社會的 관심 속에서 造景에 대한 認識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의 傳統的 造景에 대한 명확한 解析 및 그 再現은 資料의 脆弱性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研究는 “昌德宮 整備計劃 - 樹木 및 植生

이 논문은 문화재관리국의 연구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된 학술용역 ‘창덕궁 정비계획-수목 및 식생을 중심으로-’를 1)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전통공간의 시대적 변화 2) 문화재 경관 구성요소로서의 식생, 물, 지형 3) 정비방안 으로 나누어 게재하고자 하는 것중 그 첫번째 것임.

을 中心으로—”(韓國造景學會, 1989)의 一環으로서 昌德宮內的 建築物에 의한 空間의 歷史的 變遷過程을 分析하고, 現在의 建築物과의 關係를 分析하여 宮闕造景의 根幹이 될 수 있는 空間을 파악, 후속되는 研究와 連繫하여 傳統 宮闕造景의 復元을 위한 基礎를 마련하려는 目的을 갖고 있다.

본 研究의 對象인 昌德宮에 대한 造景 關聯研究로는 昌德宮 宮園造景 세미나(1973)에서의 各 研究, 이영로(1982), 오구균(186)등의 현 植生에 관한 研究, 변우혁(1976), 윤국병(1984), 정동오(1974)의 空間特性 研究 外, 各 개별 건축물에 대한 建築的 考察 등이 다수 있으며, 本 研究는 이들 各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을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하여 보고자하는 意義를 갖고 있다.

II. 研究의 方法

本 研究는 昌德宮內的 建築物, 構造物 등의 空間構成要素를 파악하며, 그 시대적변화와 그에 따른 空間造營이라고 規程할 수 있는 基準을 時間的 基準에 의하여 日帝 韓日合邦 以前에 이루어진 變化는 그 再造營이 傳統的 技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規程하였다.

이에 王朝實錄, 宮闕志, 增補文獻備考 등의 文獻으로부터 建築物의 新·增築, 毀損 및 再建 등을 파악하였으며, 東圖(1826-1830), 朝鮮古積圖報(1910) 등으로 부터 그 당시의 造營을 파악하여 공간별 시대별 變化를 분석하였으며, 공간조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축적 造營요소를 파악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의 昌德宮과 비교하여 各 空間構成의 被害程度를 區分, 傳統空間의 造營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분류하고, 造景的 側面에서 傳統宮闕 造景의 再現을 위하여 조속한 復元이 이루어져야 할 空間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I. 結果 및 考察

昌德宮은 現存하는 朝鮮時代의 宮闕중에서 가장 잘 原形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덕궁은 1392年 朝鮮의 開國 이후에 서울로의 遷都와

正宮으로서의 景福宮 創建 이후 第 3代 太宗에 의하여 1405年 離宮으로서 조성된 것으로 昌德宮의 造成에 關係하여 太宗4年(1404) 造營責任者를 정하였으며,¹⁾ 離宮의 터를 정하게하여 향교동, 지금의 창덕궁터에 지을것을 명하였다.²⁾

宮闕의 造成은 太宗 5年 2월에 政殿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으며,³⁾ 공사를 命한지 만 1년이 경과된 10월에 궁궐이 조성되었음을 기록하였고,⁴⁾ 昌德宮이라고 이름을 짓게되었다.⁵⁾ 이때의 殿閣에 대하여는 外殿 74間, 內殿 118間이라고 實錄에 규모가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太宗12年 敦化門(寶物 383號)을 建築함으로써 宮城으로서의 規模가 정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87, p59)

이후 昌德宮은 各 個別的인 殿閣의 新築, 增築, 火災에 의한 燒失, 復舊등을 거듭하나, 특히 宣祖 25年(1592)의 壬辰倭亂에 의한 敦化門을 제외한 全消와 仁祖反正(1623) 당시의 主要殿閣의 火災로 가장 큰 피해를 겪게되며, 1917年 內殿의 화재로 1920年 일제하에서 復元工事を 마치게 되는 것과 1950년의 6.25동란이 현대에와서의 가장 큰 사건이다.

이들 주요사건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면, 壬辰倭亂에 의한 피해는 창덕궁 전체에 대한 피해로 敦化門을 제외한 全體 殿閣이 소실되었으며, 後苑도 큰 피해를 보게되어 이후 20여년간 황폐화되다가 점차적인 復元工事로 光海君 3년에 이르러서야 再建되었으며,⁶⁾ 光海君 15年(1623)의 仁祖反正時에는 放火에 의하여⁷⁾ 外殿의 仁政殿과 都總府, 春秋館, 都總府廊廳房, 丕承閣, 弘文館 등과 內殿의 壽精堂 등을 제외한 많은 전각이 훼손되었으며(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9, p127), 仁祖 25年 6월에 復元工事が 시작되어 11월에 外殿의 仁政殿東月廊, 承政院, 宣政殿 等 314間과 內殿의 大造殿, 熙政堂 等 421間이 再建되었는데, 이 工事は 仁慶宮의 殿閣을 헐어 그 資材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5개월 이라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⁸⁾

창덕궁이 마지막으로 크게 화재를 입고 다시 重修된 것은 일제대로 1917년 11월 10일 大造殿 서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內人 更衣室에서 불이 일어나, 大造殿을 포함 與福軒, 養心閣, 熙政堂, 景薰閣, 澄光樓

註 1) 太宗實錄 卷7 太宗 4年 9月 己亥條 : 以星山君李稷·鷲山君辛克禮爲漢京離宮造成提調
2) 太宗實錄 卷8 太宗 4年 9月 辛亥條 : 命卜離宮地于漢京 遺劉早雨·尹宰達·李陽達以下之
· 新都離宮造成都監 爲宮闕修補都監
3) 太宗實錄 卷9 太宗 5年 2月 己丑條 : 辛離宮 御正殿聽政
4) 太宗實錄 卷10 太宗 5年 9月 乙巳條 : 督新都離宮修葺之役
太宗實錄 卷10 太宗 5年 10月 辛巳條 : 離宮造成
5) 太宗實錄 卷10 太宗 5年 10月 丁亥條 : 號離宮曰 昌德宮

玉華堂, 靜默堂 등 內殿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이 때의 피해를 복원하기위한 공사는 1917년에 시작되어 1920년에 준공되었는데, 重建 建物は 景福宮의 殿閣을 撤去, 移建하였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9, p66)

중건된 건물은 大造殿을 위시하여 熙政堂, 興福軒, 景薰閣, 含元殿 등으로 일본식의 건축수법이 침투하게 되었으며, 건물구조를 서양식으로 변화시킨 것도 있었다. 이후 6.25동란의 전화를 겪었으나 文獻上으로 명확히 기록된 창덕궁의 피해는 없었으며 단지 進善門이 이당시 소실되었을 것이라는 추측과 관리의 미비로 수목에 의한 변화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1. 19세기 以後의 건축물 變化

昌德宮內 建築物에 대한 기록들은 주로 王朝實錄, 宮闕志, 昌德宮修理都監儀軌 등이 있으나 한 시점에서 전방적인 기록을 찾기는 어려우며, 또한 主要殿閣에 대한 기록은 상당수 발견되나 기타 전각에 대한 기록은 미흡하여 그 위치조차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全體的인 宮闕造營을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자료로서 純祖 26年(1826)에서 純祖 30年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분석된(이창교, 1974, p99) 東闕圖를 들 수 있으며, 이에 東闕圖上에서 파악되는 주요 건물들을 현재의 위치에 표시하여 본 것이 그림 1이다.

다.

또한 增補文獻備考(古典刊行會, 1908)에 기록된 전각을 동궐도와 현재의 건물 위치를 연계하여 그 위치를 표시한 것이 그림 2이며, 6.25를 전후한 1950년대의 건물위치를 王宮史(이철원, 1954)에 의하여 파악 표시한 것이 그림 3이다.

이상은 1800년대 이후의 昌德宮의 全體的인 建築物의 變化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써 이들을 주요 전각 및 그 기능에 의하여 공간을 구분하여 각 공간별 변화의 정도를 극심, 심함, 적음, 극미의 4단계로 구분하여 본 결과가 그림 4이다.

위의 피해정도 분석결과 현재 그 모습을 전혀 알 수 없는 피해정도 '극심'의 지역은 仁政殿周邊의 1, 4, 7, 8地域과 大報壇地域인 13地域이며, 과거의 모습을 알 수는 없으나 부분적으로 건축물이 남아있는 피해정도 '심함'의 지역은 仁政殿 동쪽의 5地域이다. 또한 주요공간의 형태가 남아있는 피해정도 '적음'의 지역은 仁政殿地域, 大造殿 地域, 그리고 後苑으로서 宙合樓地域, 半島池 地域, 玉流川地域과 늦게 조성된 樂善齊地域, 新塔源殿地域이다. (표 1. 참조)

이상은 창덕궁 전체지역의 변화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1800년대 이후의 변화이며, 각 조사 시점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유무로써만 파악한 것이다. 이에 조선초 창덕궁의 조영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문헌상에 나타난 관련기록을 수집하여 공간별로 구분, 주요 건축물의 변화를 파악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註 6) 宮闕志 昌德宮志 : 光海君3年 昌德宮 重修造成

7) 宮闕志 昌德宮志 : 光海君15年

義軍이 彰義門에서 들어와 이 문을 지나 昌德宮에 이르자 敦化門의 守門將은 문을 열어 迎入하였다. (이들이)나 무 쌓아놓은 곳에 放火하자 宮闕이 불이 미치었다.

8) 昌德宮修理都監儀軌

昌德宮의 造成殿閣을 위하여 撤去된 仁慶宮 殿閣의 名稱과 間數는 서울옥백년사 문화사적편(1987) p156, 157 참조

第 1所 : 大造殿 45間, 集祥殿 20間 澄光樓上下層 40間, 玉華堂 10間半, 靜默堂 및 行閣, 當廊 等 241間半

第 2所 : 熙政堂 15間, 承明門內行閣 等 69間, 內班院 10間 等 169間

第 3所 : 寶慶堂 9間 泰和堂 12間 暗德堂 8間 및 廊 等 111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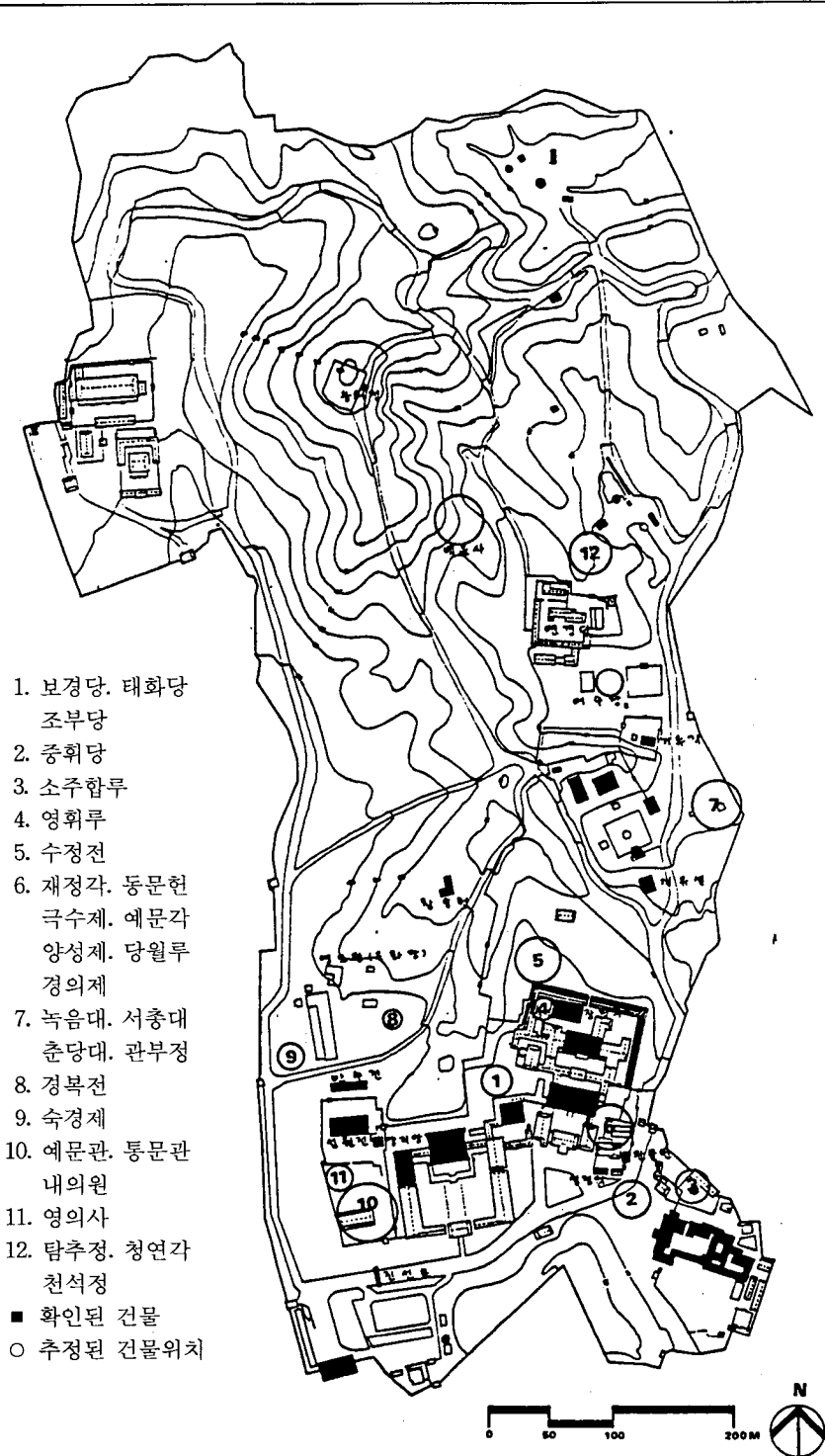
第 4所 : 宣政殿 9間 및 比月廊 等 114間

第 5所 : 仁政殿東月廊 28間, 承政院 16間, 臺諫廳 4間, 仁政門外 南月廊 8間 等 200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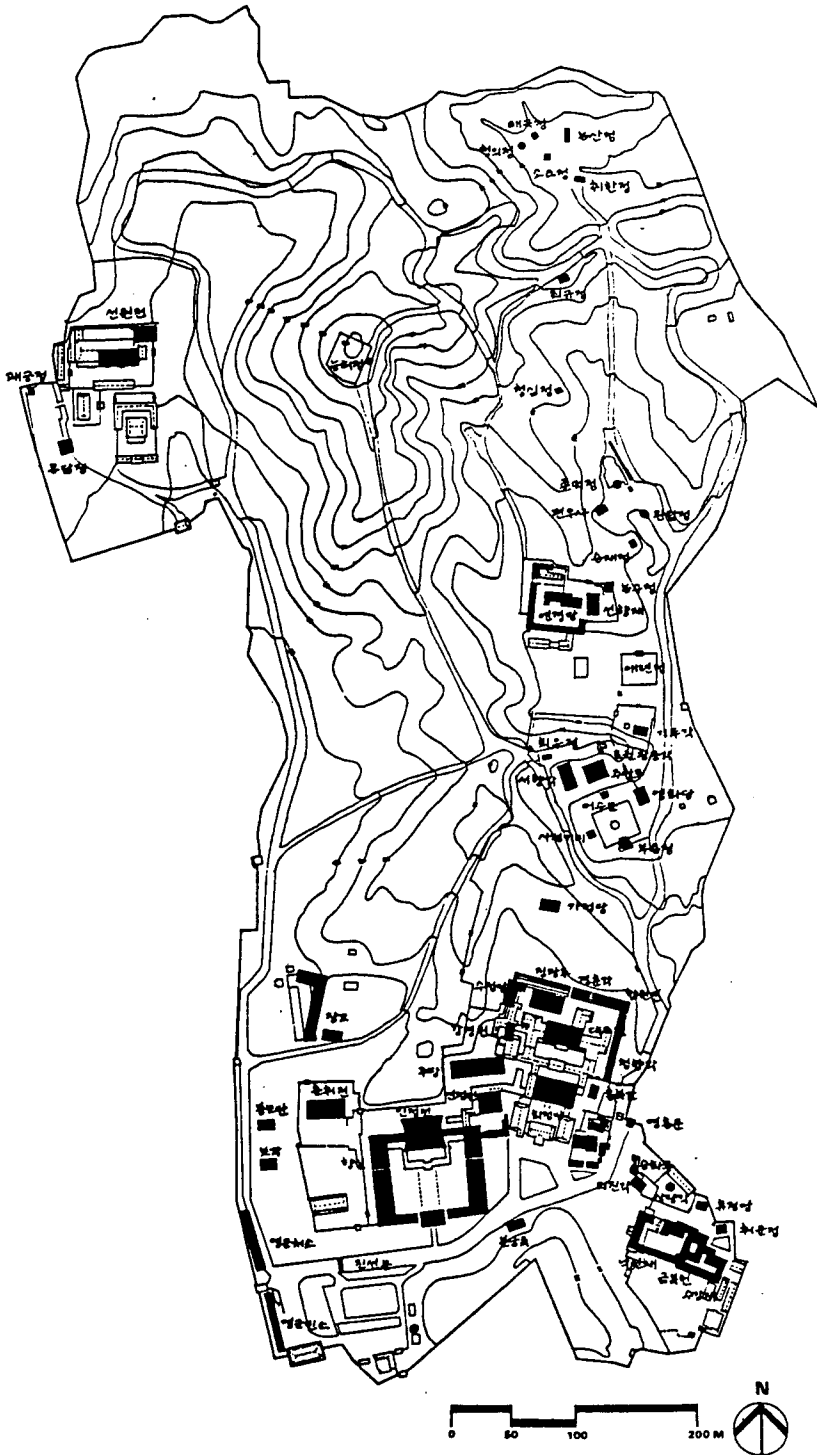


- 1. 옥당. 약방. 예문관
영의사. 장수실등
- 2. 대청상서성. 온대
문서고. 우사당루
- 3. 홍상청. 궁방 등
- 4. 재은원·등축방 수찰성등
- 5. 성정각. 희우류. 관춘정 등
- 6. 재덕당. 태화당. 정목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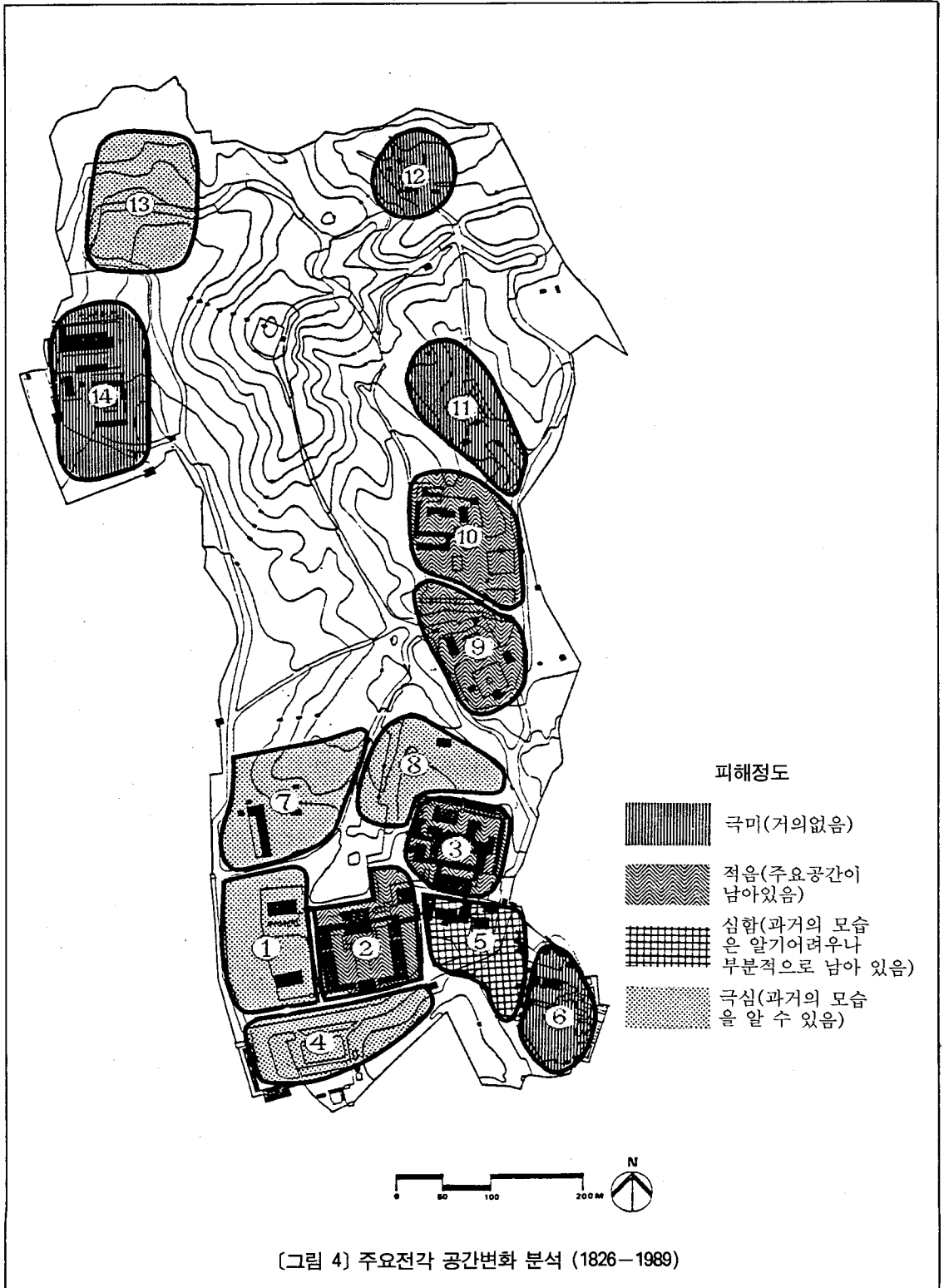
[그림 1] 1826년 주요건물 위치 (동궐도)



[그림 2] 1903년 주요건물 위치 (증보문헌비고)



[그림 3] 1953년도 주요건물 위치 (왕궁사)



[그림 4] 주요전각 공간변화 분석 (1826-1989)

〈표 1〉 地域別 被害分析表

지역	피해내용	피해정도
1 지역	· 春暉殿의 위치에 濬源殿이 남아 있으며, 그의 전체건물이 20세기 초에 소실되었음.	극심
2 지역	· 仁政殿의 지속적인 補修로 仁政殿空間은 보존되었으나, 주변의 寶慶堂, 泰和堂, 昭德堂 등의 建物群은 20세기 초에 燒失되었음.	적음
3 지역	· 大造殿과 澄光樓, 集祥殿 등의 건물은 남아있으나 清香閣, 興福軒, 含元殿, 壽靜堂 등의 건물이 소실되었으며, 20세기 초 공간조영의 상당 부분이 변형되었고 6.25동란 이후에도 변화가 있었음.	적음
4 지역	· 錦川橋와 現管理事務所 건물만 남아 있으며 進善門, 守御將廳 등의 건물과 그 공간조영이 6.25동란 이후에 큰 변화로 과거의 모습을 찾기 어려움.	극심
5 지역	· 觀物軒과 重熙堂, 齊政閣, 同文軒, 藝文館 등의 주 건물군이 20세기 초 이후에 소실됨으로써 그 공간조영을 알기 어려움.	심함
6 지역	· 원래 昌慶宮의 전각이었으나 19세기 중엽에 樂善齊를 건축하여, 그 이전의 모습은 東闕圖上에서만 알 수 있으며, 낙선제 건축 이후의 변화는 적음.	적음
7 지역	· 永慕堂, 景福殿, 肅敬齋, 蒼松軒 등의 건물군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혀 없음.	극심
8 지역	· 壽靜殿과 그주변 공간이 소실되고 19세기 초 嘉靖堂이 건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극심
9 지역	· 건물의 증·개축은 있었으나 그 기본적 공간조영의 변화는 적음.	극미
10 지역	· 愛蓮池 주변의 주요 건물이었던 魚水堂과 魚水門이 20세기초 이후 소실되었으며, 동궐도상의 演慶堂 부분이 현재와 다르므로 그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됨.	적음
11 지역	· 半島池의 형태가 方池 → 曲池 → 半島池로 변경되었으며, 演慶堂 북쪽에 위치하였던 개별 건물이 20세기 초 소실되었음.	극미
12 지역	· 건물군의 위치는 변함이 없으나 방지와 곡지가 조성되어 있었음이 동궐도상에서 발견된다.	극미
13 지역	· 大報壇(皇壇)지역이 19세기 중반이후 소실되었음.	극심
14 지역	· 20세기 중반에 濬源殿이 발견되나 현재와는 다름.	극미

2. 19세기 以前の 空間別 變遷

(1) 仁政殿 空間

〈표 2〉는 그림 4의 2지역과 4지역의 건축물로서 문헌상에서 파악된 변화이며, 그 기록이 주로 仁政殿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仁政殿은 昌德宮 外殿의 중심건물이며 政殿으로서 왕의 즉위식을 비롯하여 궁중의 큰 행사때 왕이 신하들의 賀禮를 받거나 외국사신을 接見하던

곳으로, 太宗 5年(1405) 創建후 잦은 重修와 毀損에 대하여도 즉시 復元된 역사를 갖고 있어 현재도 그 전체적 조영은 仁政殿과 그 左右月廊 및 仁政門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인정전의 남쪽인 4지역의 경우 현재는 그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는 많은 건물군이 있었으나 그에 대한 기록을 찾기가 어려웠으며, 창덕궁의 공간적 구성으로 보아서 敦化門과 錦川橋를 지나 仁政門에 이르는 중간에 있었던 進善門과 進善門의 대

註 1) 燕山君日記 卷 54 燕山君 10年 7月 乙未條

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7, p62

現在까지 알려진 文獻記錄으로는 仁祖 25年 再建되고나서 被災되었다는 記事가 發見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단 現在의 建物을 當代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仁政殿空間 建築物 變化(□: 創建, ■: 改修·重修, △: 燒失, ●: 再建, ○: 存在)

仁政殿	太宗5年□ ¹⁾ 태종18년■ ¹⁾ 端宗元年■ ²⁾ 宣祖25年△ ³⁾ 光海君3年● ³⁾ 純祖3年△ ⁴⁾ 4년■ ⁴⁾ 哲宗8年■ ⁵⁾⁶⁾
	(1405) (1418) (1453) (1592) (1611) (1803) (1857)
仁政門	英祖20年△ 영조21년●
	(1744) (1745)
承政院	仁祖反正△ 仁祖25年●
	(1623)
敦化門	태종12년■ ⁷⁾ 壬辰倭亂○(敦化門外 全消)
	(1412) (1592)
進善門	태종11년○ ⁸⁾
	(1411)
錦川橋	태종11년□
	(1411)
宣政殿	세조7년 조계청 → 선정전 ⁹⁾ 광해군3년● 인조반정△ 인조25년●
	(1461) (1611) (현재까지 보존)
寶慶堂	" 후서별실 → 보경당 인조반정△ 인조25년●
昭德堂	" 후동별실 → 조덕당 " "
泰和堂	" " " "

칭적 위치에 있었던 肅章門에 의하여 형성되는 공간으로 仁政殿의 前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공간이며, 燕山君朝에 肅章門과 宣人門 사이에 御路를 조성하게 하였다는 기록¹⁾도 있으므로 가능한 조속한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공간이다.

인정전의 동측에는 임금이 평소애 신하들과 집무를 하던 便殿인 宣政殿이 있으며, 이 선정전은 仁祖 25年(1649) 재건후 현재까지 보존된 건물로서 그 건축학적 중요성이 높은 건물이다. 宣政殿 뒤편으로는 寶慶堂, 昭德堂, 泰和堂, 靜默堂 등의 건물이 일군을 이루고 있었으나 현재는 그 흔적을 찾

기가 어렵다.

(2) 仁政殿 西側 및 西北側 空間

표 3은 그림 4의 1지역과 7지역의 건물 변화로서 현재는 거의 그 형태를 찾을 수 없는 공간으로 인정전공간과 더불어 왕의 집무와 관련 신하들의 근무를 위한 건물들이 주로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璿源殿은 왕의 御眞을 모시던 곳이다.

특히 7지역의 경우 景福殿, 永慕堂, 蒼松軒, 肅敬齋, 捨翠軒, 萬壽殿 등의 대소전각이 있었으며, 그터에 대한 기록도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에는 그 흔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千慶樓의 경우 서측에 우

註 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7, p 59 : 改營

2) 端宗實錄 卷 6 端宗元年 4月 甲寅條

昌德宮은 처음은 修補라고 말하였으나 一礎一柱를 모두 改하고 仁政殿은 完固하여 倣舊하여도 좋은데 盡撤하여 改하니 말이 修補지 모두 新作입니다.

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7, p 61 : 光海君 卽位年 8月 仁政殿再建(官關營建都監)

4) 純祖實錄 卷 5 純祖 3年 12月 甲戌條

仁政殿이 災하였다. 酉時에 宣政殿 西行閣에서 火起하여 仁政殿에 延燒하였다.

5) 哲宗實錄 卷 9 哲宗 8年 閏5月 丙戌條: 仁政殿 修改時의 監董堂上以下에 施賞有差하였다.

6) 仁政殿重修儀軌: 哲宗 5年 9月 23日: 治木始役

哲宗 8年 閏 5月 6日: 畢役草記入啓

7) 太宗實錄 卷 9 太宗 12年 5月: 進善門之南 建樓門5間 名曰敦化

8) 太宗實錄 卷 21 太宗 11年 3月 壬寅條

構樓寢室于昌德宮 又作進善門外石橋 以工曹判書朴子青董役

9) 世祖實錄 卷 26 世祖 7年 12月 乙酉條

宮內殿閣의 改名: 朝啓廳 → 宣政殿, 後東別室 → 昭德堂, 後西別室 → 寶慶堂, 政殿 → 兩儀殿, 東寢室 → 麗日殿, 西寢室 → 淨月堂, 樓 → 澄光樓, 東別室 → 擬福亭, 西別室 → 玉華堂, 樓下 → 廣世殿, 廣延樓別室 → 求賢殿

〈丑3〉 仁政殿東側空間 建築物 變化(□:創建, ■:改修·重修, △:燒失, ●:再建, ○:存在)

璿源殿	都總府터, 仁祖反正 ¹⁾ (1623)	孝宗7年 ²⁾ 春暉殿□ (1656)	肅宗21年 춘회전 → 선원전 (1695)
春秋館	" ○		
弘文館	" ○		
內樂房	" ○		
養志堂		효종7년□	
獸線閣		" □	
五樑家		" □	
萬壽殿		효종7년 ^{2,3)} □ (欽敬閣 撤去後)	숙종13년 ⁴⁾ △
千慶樓		" □	" △
* 永依舍, 玉堂, 憶昔樓, 大西齋, 小西齋 등 東關圖에서 확인			
* 景福殿, 永慕堂, 蒼松軒, 肅敬齋, 捨翠軒 등 東關圖에서 터를 확인 가능			

물과 紅橋가 있었으며, 春暉殿 동편에 6층의 花階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재에는 그 造營을 알길이 없다. 이외 동궐도상에서는 우물과 향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大造殿 空間

大造殿은 王妃의 寢殿으로서 교태전이라고도 하며 여러채의 건물군으로 이루어져, 좌우의 興福軒, 隆慶軒과 澄光樓, 景薰閣, 集祥殿 등의 건물이 있으며 이들 일군의 건물들 남쪽 養心閣을 지난 위치에 임금의 寢殿인 熙政堂이 있다. 大造殿 주변공간도 인정전 공간과 같이 많은 피해와 복원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최초의 건축은 창덕궁 창건의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나 확실한 문헌상의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대조전 공간은 조정적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공간으로 궁궐 건축공간내에서 왕비의 침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장 깊은 장소에 아늑한 공간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大造殿 後苑

의 花階와 煙家, 현재의 嘉靖堂이 위치하고 있는 別園의 조성 등에서 현재에도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으며, 大造殿과 花階, 熙政堂과 大造殿 사이에도 작은 뜰이 조성되어있어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수종선택에 있어서는 전통조경수목에 관련된 많은 문헌과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현재의 향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등 교목성 수목이 식재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4) 重熙堂 空間 外

大造殿과 熙政堂 空間의 남쪽이며, 仁政殿空間의 동쪽인 지역에는 誠正閣, 喜雨樓, 澹月樓, 內班院, 燈廚房, 武藝廳 등 많은 건물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기록은 일부 건물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찾을 수 있으나 중요시하지 않았으며 현재에는 상당부분이 소실되어 그 공간의 짜임새를 알길이 없었다.

이외 重熙堂 空間의 경우도 東關圖에서 보면 翠屏, 片柵, 香爐 등의 空間裝飾物을 갖는 큰 공간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承華樓(小宙合樓) 建物만이 남

註 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9, p 127

이때 火災를 면한 建物로는 外殿의 仁政殿과 都摠府, 內樂房, 春秋館, 都摠府廳廳房, 丕承閣, 弘文館 등과 內殿의 壽靜堂 등이었다.

2)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

孝宗 7年 8月 11日 酉時에 欽敬閣을 撤毀함으로써 始役

孝宗 8年 3月 26日 畢役

4月 2日 巳時에 內移

萬壽殿 36間, 千慶樓 20間, 獸線閣 30間, 五樑家 8間, 外行廳平樓 3間外 總 180間, 春暉殿 20間, 養志堂 12間 等

3) 孝宗實錄 卷 15 孝宗 6年 12月 壬子條: 萬壽殿 建立을 命함

4) 肅宗實錄 卷 18 肅宗 13年 9月 丁丑條: 萬壽殿 災

宮關志: 肅宗 13年 9月 萬壽殿, 千慶樓 災

<丑 4> 大造殿空間 建築物 變化(□: 創建, ■: 改修·重修, △: 燒失, ●: 再建, ○: 存在)

大造殿 (宮造成時建築)	燕山君2年 ¹⁾ ■ (1496)	仁祖反正△ (1649, 仁慶宮 殿閣)	仁祖25年● (1833)	純祖33年△ ²⁾ 34年● ³⁾⁴⁾ (1833)	1917년△ 1920년● ⁵⁾ (景福宮 殿閣)
隆慶軒				" △ " ●	
興福軒				" △ " ●	1917년△ 1920년●
養心閣				" △ " ●	" △
集祥殿		인조반정△	인조25년●	顯宗年間■	
澄光樓 (1층 景薰閣)		" △	" ●	순조33년△ " ●	" △ 1920년●
玉華堂		" △	" ●	" △ " ●	" △
壽靜殿		" ○			
熙政堂		" △	" ●	" △ " ●	" △ 1920년●
重熙堂				正祖6年□ (1783)	

아 있으며, 현재의 樂善齋空間도 王宮史(1953)에서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으나 동경도와 비교하여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後苑

後苑의 경우 昌德宮 남쪽의 주요 건물공간이 화재등의 많은 피해를 본 것에 반하여 건축물의 훼손은 적으나 시기별로 관리의 부재로 인한 방치로 황폐화를 겪었으며, 수목의 인위적 식재 및 일제시대 이후 공원으로서는 개방에 따른 인재를 많이 받았다.

宣祖 25年(1592)의 壬辰倭亂으로 昌德宮과 함께 20년간 폐허가 되었으며, 光海君2年(1610)에야 궁

을 다시 지으면서 後苑에 映花堂과 亭子를 세웠고, 이후 仁祖 年間에 많은 정자를 세우고 玉流川을 조성함으로써 현재의 후원과 유사한 형태의 기초가 잡히게 되었다.

후원의 공간에서는 그림 4에서도 알 수 있듯이 芙蓉池, 半島池, 玉流川 空間의 경우 그 피해가 거의 없고 愛蓮池空間에서는 魚水堂空間이 소실된 것이 宮關後苑 造景의 空間造形을 알 수 있는데 있어 큰 손실이다.

朝鮮王朝에 있어서 창덕궁 후원조성의 시초는 太宗 6年 解溫亭(후의 愼獨亭)과 解溫亭池를 조성한 것이며⁷⁾世祖朝에도 後苑에 연못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으나,⁸⁾현재는 그 위치를 알 수 없으며, 후

註. 1) 燕山君日記 卷 17 燕山君 2年 3月 癸巳, 丙甲條
大造殿의 重修, 修文堂의 改作을 命, 臣下들은 工役을 벌이지 말것을 要請

2) 純祖實錄 卷 15 純祖 33年 10月 甲寅條
夜四更에 昌德宮 大造殿及 熙政堂이 火하고 澄光樓, 玉華堂, 養心閣이 延燒

3) 昌德宮營建都監儀軌
純祖 33年 11月 15日 辰時: 定礎
11月 26日 申時: 大造殿, 熙政堂, 澄光樓 立柱
12月 4日 申時: 大造殿, 熙政堂, 澄光樓 上梁
純祖 34年 9月 28日: 畢役

4) 宮關志 昌德宮志
再建된 建物 大造殿, 熙政堂, 澄光樓, 景薰閣, 玉華堂, 隆慶軒, 興福軒, 養心閣 克綏齋, 靜默堂 等 總 370餘間

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7, p 66-67
重建된 建物は 大造殿, 熙政堂, 興福軒, 慶薰閣, 含元殿 等

6) 憲宗12年(1846) 建立
본 건물에 집속된 錫福軒과 壽康齋를 總稱하여 樂善齋라하며 과거에는 仁慶宮의 殿閣이었음.

7) 太宗實錄 卷 11 太宗 6年 4月 辛酉條: 昌德宮 東北隅에 廣延樓와 解溫亭을 지었다.
太宗實錄 卷 17 太宗 9年 3月 己巳條: 樓앞에 못을 파고 蓮을 심었다.
太宗實錄 卷 27 太宗 14年 6月 戊午條: 亭名을 愼獨亭으로 개칭

8) 世祖實錄 卷 17 世祖 5年 8月 乙酉條: 後苑에 御하여 좌우로 나누어 盤池하였다.

<표 5> 大造殿 空間 建築物 變化(□: 創建, ■: 改修·重修, △: 燒失, ●: 再建, ○: 存在)

宙合樓		肅宗16年■ (1690)	正祖元年 奎章閣□(宙合樓 1층) (1777)
喜雨亭	燕山君10年■ (1504)		
書香閣			英祖53년□ (1777)
映花堂	光海君元年□ (1609)	숙종18년■ (1692)	
芙蓉亭		숙종33년 澤水齊□ (1707)	正祖元年 → 芙蓉亭■ 정조16년■ (1777) (1783)
閱武亭	世祖7년○ (1461)		
四井記碑閣		숙종16년■ (1690)	
芙蓉池	세조7년○ 연산군10년■ (1504)		정조원년 → 芙蓉池■ (1777)
愛蓮堂		숙종18년□ (1692)	
魚水堂	(현재의 애련지와 소애련지 사이에 위치)		영조52년□ (1776)
演慶堂			純祖28年□
愛蓮池		숙종18년□ (1692)	
尊德亭	仁祖22年□ (1646)		
觀纜亭 (6각형대)	인조25년□		순조년간■ (부채꼴)
勝在亭	" □		
清心亭		숙종14년□	
尊德池	인조22년□		순조년간 (方池 → 曲池)
聚奎亭	인조18년□		
翠寒亭		숙종원년□	
逍遙亭	인조14년□ (歎逝亭)		
籠山亭			
太極亭	" □(雲影亭)		
清漪亭	" □		
玉流川	" □		

註 1) 燕山君日記 卷 54 燕山君 10年 7月 癸巳條
傳하여 曰 . . . 閱武亭, 七德亭, 喜雨亭을 아울러 造成할 것을 命하였다.

의 芙蓉池인 閔武亭池와 閔武亭, 新茅亭이 世祖朝에 존재하고 있었다.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후원에 建築物를 新築하거나 重修하였으며, 光海君 2年(1610)에는 實錄에 후원조성의 기묘하고 사치함을 기록하고 있다.²⁾

후원의 건축물과 연계된 공간은 물과의 관계로 쉽게 芙蓉池空間, 愛蓮池空間, 半島池空間, 玉流川空間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는 그 造營을 전혀 알 수 없는 東關圖上的 皇檀, 大報壇空間과 과거의 璿源殿의 機能을 갖고 있는 新璿源殿空間이 있다.

(가) 芙蓉池 空間

현재의 昌德宮 後苑중 가장 오랜전에 조성된 공간이 芙蓉池 空間으로 實錄에 睿宗元年에 왕이 閔武亭에 왔다는 기록을 하고 있으며³⁾ 閔武亭 前池의 존재도 확인되며, 그 위치가 四井記碑閣 근처임이 확인된다.⁴⁾

현재 남아있는 대표적 건물은 芙蓉亭, 과거를 보던 瑞蔥臺와 映花堂, 芙蓉池로부터 魚水門을 통하여 段위에 자리잡고 있는 宙舍樓가 있으며, 왕비가 누에를 치던 晝香閣, 霽月光風館 등의 건물이 있다.

肅宗 年間에 각 개별 건축물의 改修가 있었으며, 正祖御製 芙蓉亭 上樑文에 正祖元年(1777) 閔武池를 芙蓉池로 개칭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澤水齋를 改修하여 芙蓉亭이라 개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 宙舍樓의 1층인 奎章閣도 건축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때에 현재의 모습과 유사한 공간이 이루어졌음이 파악된다.

東關圖上에서는 宙舍樓 앞 段에 翠屏이 확인되며 현재와 같이 수목이 식재되어 있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 愛蓮池 空間

愛蓮池와 演慶堂은 肅宗 18년에 조성되었으며 演慶堂은 純祖 28년에 士大夫의 아흔아홉간집의 모습을 조영한 것이다. 愛蓮池空間에서 현재 그 모습을 파악할 수 없어 아쉬운 공간은 현재의 愛蓮池와 小愛蓮池 사이에 있었던 魚水堂空間으로 소실된 시기도 알 수 없었다.

(다) 半島池 空間

半島池空間의 최초의 조영은 仁祖22年 尊德亭과 尊德池를 造營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仁祖 25年 觀纜亭과 勝在亭을 건축하였고, 純祖年間에 觀纜亭을 현재의 부채꼴 모양의 亭자로 改修하면서 尊德池도 方池에서 曲池로 변화시켰다. 이때의 모습은 東關圖上에서 확인이 되나 이후 현재의 반도지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그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일제때 변화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라) 玉流川空間

仁祖年間에는 玉流川空間의 建築物가 대부분 조성되었는데 仁祖 14年(1638) 歎逝亭(현재의 逍遙亭), 淸漪亭, 雲影亭(현재의 太極亭)이 건축되었으며 玉流川이 조성되었다. 이후 인조 18년에 聚奎亭이 건축되었으며 翠寒亭이 肅宗元年(1675)에 건축되었다.

IV. 結 論

이상의 1800년대 이후의 건축물 변화와 1800년대 이전의 변화를 종합하여 추측해보면 조선왕조가 집권을 하고 있었던 20세기 이전까지는 昌德宮의 전체적인 造營이 유지되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왕조의 지속적인 승계와 관련하여 궁궐의 훼손에 대해 빠른 보수와 관리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東關圖와 增補文獻備考의 비교에서 쉽게 파악되듯이 그림 4의 1지역과 7지역의 일부 건물이 상이한 것 이외에는 主要殿閣과 그 附屬建物이 거의 유지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昌德宮의 현재의 모습은 일제시대 1917년의 화재와 그에 따른 재건시에 주요전각은 재건되었으나 기타 군소전각은 소실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朝鮮古蹟圖報(1933)에 수록되어 있는 창덕궁 관련 사진이 현재의 건물배치와 거의 같음으로도 파악되는 바, 增補文獻備考와 朝鮮古蹟圖報의 중간시기에 현재의 昌德宮이 이루어진 것이다.

후원에 있어서는 1917년 화재의 피해를 입지않음으로 건축적요소의 변화는 크지 않다고 판단되나,

註· 1) 世祖實錄 卷 26 世祖 7年 11月 乙酉條: 閔武亭에 御하였다.

2) 光海君日氣 卷 25 光海君 2年 2月 乙未條

後苑內에 奇花異木과 怪石을 度樂할 수 있도록 하였고 園有花石사이에 小亭을 만들어서 遊覽에 준비하였고 그 기묘하고 사치함이 예전에는 없었다.

3) 睿宗實錄 卷 4 睿宗元年 閏2月 丁巳條

後苑에서 習陳이 있을 때 王이 亭子에 御하였다.

4) 宮闕志 昌德宮志

閔武亭· · · 傍有 四井 述盛閣 在閔武亭池 卽四井記碑閣

半島池의 형태가 方池에서 曲池로 변화된 기록은 확인되는 반면 曲池에서 현재의 半島池 형태로 변화된 시기는 알 수 없어 일제시대에 변화된 것으로 추측되며, 일본인에 의한 창덕궁의 공원으로로서의 일반공개와 6.25의 전화, 그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의 미비로 폐허화되었으며 현재는 1976-79년의 보수공사와 입장객의 통제로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現在の 昌德宮에서 일제시대 이전의 傳統的 造營을 볼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함이 원론적 측면에서는 정확할 것이나, 後苑의 建築物空間이 그 변형의 정도가 적으며, 仁政殿空間과 大造殿空間이 부분적 建築物의 燒失은 있으나 여타지역에 비하여 훼손의 정도가 적으므로 이들 空間에 대한 全般的인 研究, 檢討와 再造營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외의 공간으로는 우선 敦化門에서 仁政殿까지의 進入空間에 대한 復元이 宮闈의 面貌를 갖추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공간일 것이다.

昌德宮의 전체적인 전통공간 재조영을 위하여는 그 복원의 기준이 20세기 이전의 자료에 의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종합한 전체적 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복원을 위한 기초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기, 정재훈, 한국의 정원(비원)
 고전간행회(1908) 증보문헌비고, 동국문화사
 동궐도(1826~1830)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본
 문화재관리국(1989) 고궁문화재 청소년 여름학교
 교재, 창덕궁
 변우혁(1976) 이조시대 정원의 수목과 배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1979) 서울시육백년사, 제 3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1987) 서울시육백년사, 문화사적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79) (국역) 증보문헌비고, 상위고
 안휘준편(1983) 국보20, 국보편찬위원회
 오구균(1986) 자연식생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배식설계 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국병(1984) 문화재보수 기술교재-한국의 전통정원, 문화재관리국
 이규현(1988) 근대한국-산화와 풍물(상), 서문당
 이유직(1987) 조선시대 궁원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생태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정섭(1984) 창덕궁내 정·사·당·제의 주연조사 현황, 문화재 17 : 156-168
 이창교(1974) 동궐도, 문화재 8 : 98-117
 이철원(1954) 왕궁사, 동국문화사
 정동오(1974) 이조시대의 정원에 관한연구, 한국정원학회지 3 : 21-37
 정동오(1986) 한국의 정원, 민음사
 정재훈(1978) 문화재 기술교육교재-한국의 정원, 문화재관리국
 정재훈(1978) 창덕궁 후원에 대하여, 고고미술 137호, 한국미술사학회
 조선총독부(1933) 조선고적도보, 제10권
 창덕궁궁원조경세미나(1973) 한국조경학회지, 1
 홍선기(1991) 조선시대 궁궐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생태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